

沈天風の 新小説 「兄弟」攷

— 技法을 中心으로 —

金 恩 典*

1. 序 言

〈新小説〉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李人植・李海朝・崔瓚植・安國善등 開化期 엘리트들의 作品을 연상하게 되며, 또 이들의 作品이 新小説의 全部인 양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時期的으로 볼 때, 이들의 作品은 新小説의 시작에 불과하며, 그 뒤로 ‘有名無名の 作家와 그의 小説作品이 洪水와 같이 쏟아져 나왔던 것’¹⁾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을 것이다.

李在秀는 李人植의 「血의 淚」가 「萬歲報」에 연재되던 1906년(光武 10년)을 起點으로 잡아 약 15년간을 新小説 前期로 잡고, 1915에서 1930년까지의 약 15년간을 그 後期로 잡는다.²⁾ 前期는 李人植의 活動期間과 겹치며, 그의 作故로써(1916년) 前期文學은 실제적으로 끝막는다.³⁾

後期文學이 前期文學에 비하여 思想의 무게나 價値面에서 다소 손색이 있음은 李在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兩者의 優劣을 어느 한 局面에 치우쳐서 논한다는 것은, 다른 面의 長短點을看過할 오류를 범하기 쉽다. 즉 讀書大衆을 사로잡는 興味面이라든지 스토리의 짜임새라든지 하는 면에서는 前期의 作品들이 後期 作品을 따를 수 없다. 예컨대 李在秀가 後期 小説의 ‘最初의 作品’이라 指目하는⁴⁾ 一齋 趙重桓의 「長恨夢」은, 그것이 비록 日本의 尾崎紅葉의 「金色夜叉」의 翻案이라고는 하나, 당시의 우리나라 대중에게 迎合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心絳을 울렸는지

* 師大 副教授(國文學專攻)

1) 申基亨 「韓國小説發達史」, 彰文社, 1960, p. 458.

2) 李在秀 「韓國小説研究」, 宣明文化社, 1969, p. 429.

3) Ibid., p. 428.

4) Ibid., p. 431.

그 類例를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悲戀의 主人公 男女인 李守一과 沈順愛의 人間像은 일찌기 成春香이나 下學道가 그랬듯이 우리 겨레의 가슴 속에 살아남을 典型의 人物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때, 이제까지 等閑히 되어왔던 後期の 小說들에 대해서도 學問의 照明을 가하여, 그 價値를 發掘하고, 또 이들에게 합당한 國文學史上的 地位를 부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沈天風의 小說「兄弟」는, 開化意識 위주의 前期小說에 비하여 興味本位로 나가는 後期小說 중에서도 매우 재미있게 읽힐 수 있는 作品이며, 여기에는 作者의 이야기꾼[story teller]으로서의 非凡한 技法이 주요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筆者는 이 점에 着眼하여 그 以前의 作家나 作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새 手法을 찾아내어, 그 作品이 지닌 文學史的 意義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作家에 대하여

沈天風의 本名은 沈友燮으로, 1889년 京畿道 果川郡 鷲梁津 黑石里 5의 7[지금의 中央大學校 근방]에서 三代에 걸쳐 살고 있던 沈相筵과 海平尹氏 사이의 三男一女 중 長男으로 出生하였다. 이들 兄弟는 長男 友燮, 次男 明燮, 三男 大燮이니, 天風을 「常綠樹」의 作者 沈燾의 말미아라 설명하면 차라리 理解하기 쉬운 것이다.

이들 집안의 家勢는, 三百石 지기에 40間들이 기와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막내인 大燮이 王族 李海昇의 妹인 全州李氏[李海暎]와 結婚한 것을 보아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⁵⁾

長男인 友燮이 雅號를 ‘天風’이라 한데 이어 次男인 明燮(雪松)이 ‘地風’이라 하였기 때문에 沈燾을 그의 벗들이 놀림삼아 ‘海風’이라 불렀다는 일화가 있으나,⁶⁾ 그것은 여하튼 燾이 文學에 뜻을 두게 된 原因도 당시 文學青年이던 말미 天風의 感化 때문이라고 한다.⁷⁾

5) 採求堂「沈燾文學全集」1966. 卷末年譜 및 柳炳奭「沈燾의 生涯研究」.(「국어 교육」誌 通卷 14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刊, 1968. 12.), p. 12.

6) 柳炳奭「沈燾의 生涯研究」, p. 12. 및 p. 23.

7) Loc. Cit.

天風은 1906년, 18세로 徽文義塾 제 1기생으로 入學한다. 일찌기 崔南善의 「少年」·「아이들보이」·「青春」등 雜誌를 愛讀하였고, 또 스스로도 「青春」誌의 주요한 寄稿家였다고 하는데,⁸⁾ 그가 小説을 쓰기 시작한 것은 學生 時節부터로 보인다. 당시 學生들의 勉學을 勸獎하며, 士氣를 振興 發達시킬 것을 目的으로 하여 刊行되던 獎學雜誌 「獎學月報」(1908년 1월 20일 創刊, 5호로 終刊)에는 小説欄이 設置되어 學生들의 作品을 懸賞 募集하여 掲載하였는데, 天風の 投稿 作品이 두 차례 入選된 바 있다.⁹⁾

通卷 3號, 「枕上有覺」(2等 入選, 1等은 없음)

通卷 4號, 「夢覺」 (3等 入選, 1等은 없음)

「獎學月報」가 終刊時까지 總 14篇의 入選作을 실었는데, 이 가운데 그의 作品이 上位에서 2篇이나 들어 있다는 사실은, 그의 實力이 상당한 水準에 있음을 證明한다.

天風の 本格的인 創作活動은 1917년, 長篇小説 「山中花」를 每日申報에 연재하면서 軌道에 오른다.

그는 23년부터 東亞日報·朝鮮日報·中央日報 등 新聞社에 記者로 근무하면서 作品活動을 계속하나, 末年에는 그의 行跡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3. 「兄弟」의 原本

本 論文에서 臺本 [텍스트]으로 삼은 것은 乙酉文化社 刊行 「韓國新小説全集」 제 8 권(1969년)이다. 이 책의 卷末 解説을 참고하면 原本은 '1921년 1월 25일 3版(1928년 11월 20일 初版)發行, 著作兼 發行者 姜義永, 發賣元 永昌書館'으로 되어 있다. 前記의 '1928년 初版'은 1918년의 誤植일 것이며 姜義永은 天風の 匿名으로 보인다. 後期小説 중에서 作者나 作品·年代가 不分明한 것이 있는 점에 대하여 前記 李在秀는 '本格小説이 相當한 水準에 올라 있는 그 당시에 大衆小説의 作家가 自己의 筆名을 꺼렸다는 事實'을 지적하고 있다.¹⁰⁾

8) 趙容萬 「六堂 崔南善」, 三中堂. pp. 121~2.

9) 宋敏鎬 「韓國開化期小説의 史的 研究」, 一志社, 1976. pp. 40~1.

10) 李在秀 Op. Cit., p. 432.

그러나 이 作品은 당시에 流行하던 俗된 探偵山說類나 戀愛活劇이나 혹은 ‘××淚’와 같이 淚字가 붙는 感傷의 人情悲劇의 部類와는 판이한 本格的 小說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作品이 1918년에 初刊된 以來 3년과 3년간에 3版이나 나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作品이 당시 大衆에게 愛讀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作品 梗概

作品을 분석하거나 論하기 전에 그 梗概를 概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仁川에서 살며 初等商業學校에 다니고 있던 韓英植은, 홀어머니의 臨終의 자리에서 단하나의 血肉인 아우 哲植을 험것 보살피 줄 것을 약속한다.

원래가 貧寒한 데다 生計가 막연해진 그들 兄弟는 求職을 하던 중, 大學進學을 위하여 中學을 마치고 語學공부를 하던 哲植에게 金이 되어, 紙嚙을 하는 富者 朴宜正의 아들의 英語 側人指導를 하게 된다. 그러나 容貌과 화사한 反面 心身이 허약한 그는 毒感으로 자리에 눕게 된다.

學校를 마치지 못했다 하여 일자리를 번번히 거절당하던 兄 英植은, 아우의 藥값과 食生活 때문에 다짐내는 거리의 清掃夫가 되어서 거리에 쌓인 눈(雪)을 쓸게 된다.

겨우 健康을 회복한 哲植은 다시 家庭教師로 다니기 시작했으나, 어느날 밤 추위를 못 이겨 歸家 전에 茶집에 들러 平素에 못 마시던 술을 마시고 醉氣로 意識이 몽롱해진 가운데 그 집 下女가 입혀 주는 남의 털外套를 입은 채 집에 돌아온다.

그러나 다음 날에도 그는 高價의 털外套가 탐이 나 兄에게는 朴哥네 집에서 선물로 받은 것이라 얼버무리고, 다시 病席에 눕게 된다. 藥값을 조달하려던 英植은, 이 毛皮外套를 典當 잡히려 갔는데 그것이 盜難 당한 물건임이 드러나 警官隊가 집으로 들어닥치게 된다.

아우에게서 真相을 들은 英植은 아우를 대신하여 罪를 뒤집어쓰고 한 달 징역을 살게 되는데, 出獄 후에는 그는 前科者라는烙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며, 그들 兄弟는 上海로 건너가게 된다.

어느 食堂에서, 受侮를 참으며 보이로 일하던 英植은, 타고난 義俠心과 腕力으로, 食堂의 고객인 上海銀行의 社長이 陳紀章의 大金이 든 革囊을 奪取하려던 強盜 두 명을 때려 누이고 이 공으로 上海銀行의 守衛로 就職을 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그의 卓越한 人品과 實力이 인정되어 그는 社長의 秘書로 拔擢까지 된다.

한편 그의 아우 哲植도 日語와 英語의 뛰어난 實力으로 그곳 有力層을 상대로 外國語 敎習을 하던 중 富豪名士인 吳熙榮 醫師의 딸 英子와 約婚까지 하게 된다.

英植 역시 陳社長의 만말 敬姬의 尊敬과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러나 어느날 아우

의 要請으로 弟嫂가 될 吳英子를 對面한 후에는 그 女子의 美色에 홀려 심한 煩惱에 빠진다. 때마침, 새로 開設되는 上海銀行의 仁川支店長으로 발탁이 된 그는, 自身の 倫理에 어긋난 愛情을 清算하기 위해서도 기꺼이 부임하려 했으나 그의 榮達을 시기하고 겸하여 敬姬를 가로채어 장차 上海銀行을 승두리째 삼키려던 競爭者 徐相旭의 卑劣한 奸計로 過去の 罪狀이 暴露되어 支店長 부임이 取消될 뿐 아니라 銀行까지도 辭職하게 된다.

銀行을 그만두게 된 原因이 自己에게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哲植은, 빈민은 하면서도 自身の 安樂과 幸福을 위하여 眞狀을 밝히지 못하다가 不意의 交通事故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숨을 거두기 直前 그는 親知를 불러다 놓고 兄의 潔白을 밝힌다.

上海에서는 아무 職場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여, 美國으로 건너가려던 英植은 그의 高貴한 人品이 證明되어 다시 上海銀行에 돌아오게 되며, 그를 罪人 취급하여 相面하기도 꺼리던 弟嫂 英子の 尊敬까지도 회복하게 된다. 또 그를 모함하던 徐相旭 역시 惡行이 드러나 스스로 銀行을 물러난다.

몇 해 후, 仁川港은 일시 歸國하는 英植 一行을 迎接하는 사람들로 人山人海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他國에서 立身出世한 英植의 幸運을 부러워하고 칭송하는 것이었다.

5. 作品 分析

(1) 題材

「兄弟」는 題目 그대로 兄弟間의 同氣愛를 題材로 삼았다.

同氣間의 友愛는 儒敎文化圈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古來로 忠이나 孝나 貞烈에 못지 않게 重視되어 온 生活의 倫理요 社會의 規範인 것이다. 그러나 忠孝思想이나 貞烈이 小說의 主題로 다루어져 왔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지만, 兄弟間의 友愛가 作品의 主題로 빛을 보지 못했음은 奇異한 일이기도 하다. 「薔花紅蓮傳」에서 女主人公 姊妹간의 友愛가 다소 다루어지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典型的 繼母小說이나 伸怨小說에 걸들어진 양념에 불과하다. 「興夫傳」에 있어서는 도리어 遺産을 둘러싼 兄弟間의 反目과 아우의 幸運에 대한 兄의 시샘으로 一貫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거에 小說에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던 兄弟間의 友愛를 作品의 題材로 삼아 이를 正面으로 다루었다는 점은 우선 記憶되어야 할 일인 듯하다.

(2) 背景

이 소설의 배경은, 發端部の 몇 章과 大團圓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中國의 上海로 되어 있다. 물론, 主人公 兄弟를 에워싸고 얽히는 登場人物들은 中國人이다.

中國을 소설의 배경으로 삼은 例는, 金萬重의 「九雲夢」이나 「謝氏南征記」에서 보듯이 흔히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韓國 青年들을 異國의 舞臺에 올려 놓는 일은 드문 일이다.

특히 新小說의 作家들이, 韓國보다 한발짝 앞서 開化되었다는 점과 그 勢力이 強해져서 우리나라의 政勢를 左右한다는 점에서 多分히 親日的이 되어 가지고 作中 主人公을 日本에 留學시킨다거나, 日本人을 善良한 者로, 中國人을 惡한 者로 描寫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兄弟」의 作者가 中國을 소설의 舞臺로 택했다는 사실은 매우 意味가 深長하다 하겠다.

이 作品에는, 主人公과 경쟁의 관계에 있는 徐相旭과 같은 奸狡한 자도 있고, 食堂에서 陳社長의 돈 革囊을 奪取하려던 強盜도 登場한다. 그러나 英植을 알아 주는 恩人 陳社長을 비롯하여 登場人物의 거개가 다 善良한 人物들이다.

그런데 소설이 배경을 異國에 設定하는 효과[merit]는, 우리에게서 낯선 그 고장 風物과 人情이 우리의 好奇心을 刺戟하고 滿足시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 作者는 이런 점은 그냥 지나쳐 버릴 뿐 아니라, 登場人物의 姓名을 韓國의으로 作名함으로써 讀者인 韓國人의 體質에 異和感을 주지 않도록 配慮한 흔적이 역연하다.

(3) 줄거리와 結構

이 소설에서는 플롯트상으로 어떤 技巧을 부린 흔적은 없고, 平凡하게 時間의 흐름을 좇아, 일어난 事件을 叙述하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야기 줄거리는 苦盡甘來식 出世成功談의 부류에 든다. 이와 같은 出世談은 우리 고대소설의 傳統으로 보아 별로 신기할 것은 없다. 그러나, 무엇을 出世成功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問題가 있다.

‘出世’란, 고대소설에서는 科擧에 壯元及第하여 벼슬을 하고, 鎭衣還鄉하여 父母를 기쁘게 해 드리며 世人의 칭송을 받고 家門을 빛내는 것을 말한

다. 고대소설의 主人公들은 거의 모두가 이와 같은 단계를 밟아 富貴榮華를 누렸고, 안에서는 벼슬이 政丞에 이르고 밖에 나가서는 王命을 거역하는 亂臣들을 平定하거나 혹은 邊方을 어지럽히는 外賊을 물리쳐 이름을 後世에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兄弟」의 主人公 韓英植이 異國에 나가 逆境에 처하나, 誠實勤勉으로 萬難을 克服하여 富貴하게 되어, 沒落했던 家運을 回復하고 錦衣還鄉한다는 스토리는 고대소설에서의 立身出世譚과 全的으로 同軌에 속한다.

그러나, 學問을 하여 官職에 오른다는 傳統的 價値觀과는 다소 어긋나, 民間企業에서의 地位向上과 富의 蓄積을 成功의 概念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異色の이라 할 만하다. 왜냐하면 古來로 官尊民卑의 思考方式이 뿌리깊게 박혀 있던 우리 社會에서는 商業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賤富'라는 先入觀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이미 나라를 日帝에게 빼앗겼던 사실을 감안하면, 官職에 오른다는 일은 侵略國의 植民地官吏로 轉落하여 그 走狗가 되어 同族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作者가 고대소설의 傳統에 따라 일종의 出世譚을 쓰되, 적어도 李人植의 部類처럼 親日的 偏向이나 賣國奴의 立場을 거부하고 새로운 類型의 出世譚을 써 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立志出世는, 또 비단 고대소설의 傳統일 뿐 아니라, 開化期 青年들에게 靑雲의 뜻을 일깨워 주던 당시의 時代思潮였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스마일스(Smiles)의 「自助論」(Self Help)은 '立志'를 권면하는 啓蒙 敎養書로 當時 우리나라뿐 아니라 日本의 青年들에게도 愛讀되었으며, 그와 같은 '立志'思想이 六堂의 「海에게서 少年에게」와 같은 詩作品에도 넘쳐 흐른다는 사실은 주목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兄弟」의 主人公이 銀行家로서 立身한다는 이야기는, 金融을 重視하는 資本主義 社會의 到來를 은연중 反映한 것으로 간주된다.

요컨대 「兄弟」는 새로운 類型의 立身出世譚인 것이다.

한편, 스토리의 展開는 서스펜스와 伏線의 設定에 의거하고 있는데, 우선 이 作品에 붙은 副題 「過去の 罪」부터가 主人公의 未來의 運命에 관하여 暗

示的이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나 후일에 영식이가 이 말을 생각할 날이 있었도다(16章 끝)

이와 같이 말하는 영식은 십구 세의 청년으로 아무리 강건한 신체와 견훤한 심지(心志)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신산(辛酸)한 세상에 과연 그 아우를 도와주어 모친의 임종시 유언을 저버리지 아니할는지(2章 끝)

위의 例文에서 前者는 伏線이요 後者는 서스펜스의 例인 것이다.

(4) 性格[Character]

登場人物의 性格은, 作品의 始終에서 變化 없이 一貫되는 扁平人物(Flat character)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性格은 그 人物의 體軀 및 外貌와 일치된다. 가령 父親을 닮아 項羽나 張飛를 연상하리만치 氣骨이 壯大한 好男兒인 兄 英植은 心志가 굳고 俠氣가 있으며 아우를 沒我的 犧牲精神으로 감싼다. 이에 비하여 아우인 哲植은 母親을 닮아 病弱하며, 實婦人과 같이 화사한 美青年이며 나약하다. 天性은 善良하지만, 自己中心의 이어서 경우와 環境에 따라서는 自己의 責任을 남에게 轉嫁시킬 만큼 다소 可變의 人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비록 이 作品에서 主動人物(protagonist)로 登場하는 英植과, 이에 惡役으로 對立하는 反動人物(antagonist)인 徐相旭 같은 人物은 典型的인 扁平人物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可變의 일 수도 있는 人物을 登場시켰다는 점에서, 이 小説은 手法面에서 進一步했다 할 것이다.

(5) 登場人物 간의 關係

主動人物인 韓英植을 밀쳐내고 英植을 思慕하는 陳敬姬를 가로채려는 徐相旭, 이들 세 사람 사이에는 三角關係가 성립된다.

한 男子를 사이에 놓고 두 女子가 맞선다거나, 한 女子를 노리는 두 男子의 對立과 같은 愛情의 三角關係는, 新小説 後期の 作品이나 新派劇에서 흔히 다루어진 바 있다.

그런데 「兄弟」에서는, 主人公인 英植이 弟嫂가 될 吳英子에게 戀情을 품음으로써 英植—敬姬—相旭 그리고 英植—英子—哲植과 같이 二重의 三角關係가 形成된다.



이 小說에서 讀者의 興味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動因(factor)의 하나는 분명히 이와 같은 愛情의 三角關係요, 또 競爭者 간의 意志의 葛藤인 것이다.

물론 主人公인 英植은 弟嫂가 될 處女에 대한 戀情을, 理性과 意志로 克服하고, 또 갖은 謀略으로 陰害工作을 일삼던 徐相旭을 물리치고 그를 사모하는 陳社長의 딸과 常識의 테두리 안에서 幸福한 結婚을 한다.

그러나 作者는 사건을 너무 安易하게 처리한 감이 있다.

죽은 母親의 아우에 대한 偏愛——母親은 말아들을 初等商業學校에 넣었으나 둘째는 大學까지 보내려고(人文系) 中學校를 卒業시킨 바 있다——또 아우인 哲植은 自己의 罪를 兄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 그것으로 兄이 失職까지 하게 되지만 그것이 모두 재 탕인 줄은 모르고 兄의 挫折이 自己의 虛榮心을 손상시키고 自己 體面을 깎는다 하여 兄을 원망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英植의 胸中에는 심상치 않은 心理的 葛藤이 오갔을 것이지만 作者는 솜제 이런 面을 外面해 버리고 만다.

또 비록 弟嫂가 될 女子이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吳英子에 대한 사랑 역시 쉽게 斷念하기는 어려운 것이 人之常情일 것이다.

실제로 古代希臘의 悲劇이나 佛蘭西 古典主義時代의 悲劇 따위는, 이와 같은 宿命的 사랑에 빠진 男女가 熱情과 義理의 틈바구니에 끼어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하고, 感情과 理性의 葛藤 속에 懊惱하는 드라마를 빚어내지만, 「兄弟」의 作者는 모처럼 設定한 劇的 狀況을 陳腐한 常識論으로 처리해 놓음으로써 결국 이 作品을 娛樂的 通俗小說의 테두리에 묶어 둔 혐의가 있는 것이다.

(6) 主題

이 小說은 新小說 後期의 作品인 고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自主獨立을 強調'했다거나, '新教育思想을 宣傳'했다거나 '因習의 批判과 新道德觀'을 내세웠다거나 '迷信打破와 現實暴露'를 주창했다거나¹¹⁾하는 主題意識

11) 白鐵 「新文學思潮史」, 民衆書館, 1955, pp. 29~45. 참조.

은 보이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學業을 中斷하고서도 誠實과 勤勉만으로 出世할 수 있다는 反教育的 思考方式까지 엿보인다. 이것은 作者에게 深奧한 哲學이나 透徹한 文學精神이 결여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이 作品은 과거에 金萬重이 그의 「九雲夢」이나 「謝氏南征記」에서 兩班階層이 추구하는 바 生活의 理想을 反映하였듯이, 開化期라는 時代를 背景으로 하여 차츰 擡頭되어 가던 부르주아階層의 價値觀이나 生活의 理想을 表現했다는 점에서 注目할 만하다.

부르주아社會는 우선 財力을 바탕으로 한 消費生活로 그 幸福의 尺度로 삼는 경향이 있다. 여하히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가가 문제가 된다. 富를 蓄積하여 宏壯한 邸宅을 짓고, 週末에는 社交界의 名士와 淑女들을 招待하여 宴會를 열거나 혹은 테니스試合을 벌인다. 이들이 教養이 있고 趣味가 洗練된 上流層人士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이들이 流行의 첨단을 걷는 衣裳으로 몸치장을 하고, 香水와 金銀寶 등의 賈物로 恍惚한 霧圍氣를 돋우는 것도 不問可知하다. 그리고 때로는 高級乘用車로 드라이브하는 것도 常識에 속한다.

主人公인 英植과 哲植이 드나들고, 나중에는 그 家族의 一員으로 끼이게 되는 陳社長이나 吳醫師의 家庭의 霧圍氣가 바로 그와 같은 부르주아社會의 典型인 것이다.

上流社會를 背景으로 펼쳐지는, 이와 같은 호화로운 美男美女의 戀愛劇은 日帝治下의 植民地 時代에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愛讀된 바 있는 日本의 通俗作家 菊池寬의 小說을 연상케 한다.

李在秀는, 後期의 新小說이 前期 作品의 主題意識이나 思想의 雄渾性을 계승하지 못한 原因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前期小說의 最後期인 後期小說의 出發期는 純粹小說(本格的인 現代文學)의 出發點인 綜合雜誌「青春」이 刊行되었고 이미 이 時期는 前期小說의 前進인 啓蒙勢力을 그러한 낡은 小說의 形式으로 나타내기는 좀 不足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이 啓蒙性은 새로 등장하는 새 樣式의 現代小說(過渡期的)에 넘겨주고 신소설은 소설의 基本要素인 興味本位로 돌아 온 것이다.

前期小說은 그 自體가 偉大性과 大衆性의 兩面을 內包하고 있었으나 이 中에 偉大性은 純粹文學에 그 바탕을 넘기고 後期小說은 이 中에서 大衆性만을 물려 받았

다는 點에서 그 價値가 떨어지게 된 것이다.¹²⁾

李在秀의 이와 같은 發言은 後期 新小說의 일면을 옳게 지적한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新小說 後期作品의 娛樂的 내지 興味本位의 性向은 肯定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新小說이 周知하다시피 開化期 日本의 政治小說에 의해 觸發되었으므로, 主題意識의 過剩이라는 弊端에 빠졌지만, 그 惰性이 新小說 後期에 와서야 拂拭되고 小說이 '읽어서 재미있어야 한다'는 本然의 姿勢로 되돌아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兄弟」를 비롯한 後期作品은, 本格小說로 불리는 春園의 「無情」에서와 같이 作中人物의 입을 빌어 作者自身이 一場熱辯을 吐露하는 類의 稚氣는 免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結 言

英國의 作家 그린(Graham Greene)은 自己의 作品을 ① 本格的인 眞摯한 作品(Novel)과 ② 興味本位로 읽을 수 있는 娛樂小說(Entertainment)과의 두 部類로 나눈 바 있다.¹³⁾

이와 같은 二分法은,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採擇되고 있는 것이니, 즉 藝術小說과 通俗小說이 바로 그 보기이다.

前者는 作家의 透徹한 文學精神이나 創作意識의 所産이며, 讀者는 作家에게 끌려 다니게 된다. 그러나 後者의 경우, 作家에게는 讀者를 위한 서어비스精神은 있을지언정 自己를 내세울 수 없게 된다.

沈天鳳의 「兄弟」는 餘他的 後期 新小說이 그러하듯, 後者의 範疇에 든다. 골치아픈 이데올로기나 生硬한 觀念은 없으며, 따라서 春園이 당했듯이 僞善者로 몰릴 우려는 없다.

天鳳은, 自己作品에 哲學的 깊이를 加味하고 深奧한 人生觀을 곁들여, 그것을 단순한 娛樂 이상의 格調 높은 藝術作品으로 昇華시키려는 따위의 野心을 부리지는 않았다. 이 小說에는 惡者必亡·事必歸正이라는 觀念의 人生

12) 李在秀 「韓國小說研究」, pp. 429~30.

13) 乙酉文化社 「世界文學全集」, Vol. 12, 1971. 譯者 黃煥鎭의 卷頭解說 參照.

觀이 支配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作者는 이야기꾼(Story teller)으로서의 匠人氣質에 의하여, 별로 힘들이지 않고 슬금슬금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讀者 역시 아무런 負擔感 없이 이 이야기를 즐기면서 읽을 수 있다. 여기에는 西洋의 現代小說에서 보듯, 作者가 트릭을 써서 수수께끼를 던지고 讀者로 하여금 그것을 풀어가게 하려는 知的 勝負와 같은 까다로운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

作者와 讀者가 함께 즐기는 이와 같은 현상은, 農耕民族으로서의 우리 民族 특유의 樂天的 氣質에서 연유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兄弟」와 같은 後期的 新小說이, 이데올로기 過剩의 日本 政治小說의 타성을 이어받은 前期 新小說에 비해, 스토리를 中心으로 하여 興味本位로 읽혀지던 <고대소설>의 本領으로 되돌아왔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한다.

參 考 文 獻

- 金 宇 鍾 ; 韓國現代小說史, 宣明文化社, 1974.
 高麗大學 ; 韓國文化史大系 V.(言語·文學篇) 民族文化研究所, 1967.
 朴 晟 義 ; 韓國古典文學背景論(上·下), 宣明文化社, 1968.
 白 鐵 ; 新文學思潮史, 民衆書館, 1955.
 宋 敏 鎬 ;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 研究, 一志社, 1976.
 申 基 亨 ; 韓國小說發達史, 彰文社, 1960.
 李 在 銑 ; 韓國開化期小說研究, 一潮閣, 1975.
 李 在 秀 ; 韓國小說研究, 宣明文化社, 1969.